

### 본회, 임시 총회 개최 정관개정(안)등 심의 통과



본회는 지난달 28일 2001년 임시 총회를 개최, 협회정관개정(안)을 심의, 원안대로 통과시켰다.

임시총회를 거쳐 승인된 주요 정관개정(안)은 ▲정회원 자격을 육계(계육)생산통합경영주체 및 육계사육농가로 극대화시켜 육계(계육)생산자 단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▲육계(계육)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, 단체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계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
아울러 ▲정관목적 및 회원자격내용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육계농가 소득증대 및 계육의 수익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.

### 한·일계육산업발전협력회 협정서 조인

한·일계육산업발전협력회 협정서 조인식이 지난 달 14일 일본식조협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.

일본측 대표자인 "에이지 이지마" 회장을 비롯 "쇼지 하야시" 전무 등 일본식조협회 관계자와 한형석 협회부회장을 대표로한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들이 참석

한 가운데 가진 이날 협력회 협정서 조인식에서 양측은 한국·일본의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. 특히 협력회 협정서 조인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양국간 닭고기 수출입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서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한편 일본계육산업 시찰단은 협력회 조인식 이후 FOODEX JAPAN 2001 전시관 및 일본 백화점 계육시장을 시찰하고 국내산 닭고기 제품의 일본진출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"구미 아이 치킨 FOOD 남부공장" 및 "교유쇼우교조(주) 미야자키 공장"을 방문, 일본의 닭고기 생산 체계 및 시설을 시찰한 후 4박5일

간의 일본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.

